

남북관계의 전망과 남북체육교류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스포츠경영학 전공
체육사, 북한체육에 관심
kds@kgu.ac.krt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오전 9시29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첫 악수를 하고, 오후 9시28분 김 위원장 부부가 작별인사를 하고 북으로 월경하기까지 역사적인 11시간 59분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미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 날 정상회담은 10여년 가까이 단절된 남북관계 그리고 악화일로로 치달던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회담성사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회담 중에 의견조율이 안되면 돌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 조마조마하여 온종일 TV에 시선을 고정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남북 두 정상이 단 하루의 만남이었지만, 서로 상대를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었다. 남북 두 정상이 함께 '어둠'을 깨뜨리고 '민족의 봄'을 열었다.



출처: shutterstock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위협, 한반도 전쟁위기설, 국내에서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가늠할 수 없는 평창올림픽의 성패라는 이슈들로 인해 한반도는 지상 최대 긴장감이 팽팽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평화의지와 중재의 리더십, 트럼프 대통령의 탐다운 방식에 기초한 결단,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을 포기하고 잘 사는 북한이 되고자 하는 전략적 결단 등 구조와 리더십 그리고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대결 해소 노력은 북미대결로 인해 막대한 영향을 받아 왔었다. 남북과 북미 양 대결구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할 수 없다.¹⁾ 남·북·미 사이에는 전략적 삼각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평화분위기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역사상 최초의 6.12 북미정상회담까지 연쇄 개최되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남북대결 구조와 북미대결 구도의 동시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다.

1) 이종석(2018). 민족화해, 92(5), 7-11.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체육교류 전망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회담과 장성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철도연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철도, 도로, 경제 사업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은 남북간 체육교류협력 사업이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입장과 농구단 등의 단일팀 구성이 합의됐고, 남북 통일농구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호를 비롯해 2018년 3월 현재 총 10차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제사회의 10차례 이상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²⁾으로 나오게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북한의 미래 발전 목표이다. 2012년 신년 공동사에서, 2013년 7월 14일자 로동신문에서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보건, 문학, 예술, 체육을 비롯한 모든 문화 분야를 선진적인 문명 강국을 따라 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³⁾

사회주의 문명국은 구체적으로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을 지닌 선진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교육, 보건, 체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 인민생활을 다방면으로 풍요롭게 하겠다는 김정은 시대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택한 것도 '신의 한 수'로 평가받을 만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궁벽한 현실을 '평화의 제전' 참여라는 명분으로 절묘하게 국제사회 고립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으로써 그리고 사회주의 문명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지이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3월 방북한 IOC 바흐 위원장에게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길을 열어준 IOC의 공로"라며 노고를 치하한 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계획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하계 청소년올림픽과 2020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동계 청소년올림픽에도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OC 위원장도 북한 선수들의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⁴⁾

김 위원장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시현하려 애썼고, 각종 교류협력 사업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⁵⁾

2) 이수석(2018). 대북 압박과 제재 평가 및 전망. 북한연구소.

3) 로동신문. 우리 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 2013.7.14.

4) 조선일보. 2018.6.6.

5) 신법철(2018). 북한변화, 어디까지. 북한연구소, 8월 6일자.

활발한 남북체육교류, 원활한 판문점선언 이행

지난 6월 18일 남북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에 따라 ‘남북체육회담’을 가졌다.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남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 참가,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남북 사이의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측이 조율하여 이행해나가고 있다.

탁구선수권대회

탁구가 첫 신호탄을 올렸다. 지난 5월 스웨덴에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IOC의 지원으로 남북 여자탁구단일팀 기회가 주어졌다.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이후 무려 27년 만에 남북 여자단일팀이 구성이었다. 급작스럽게 팀이 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일팀을 기약했었고 6월 개최될 평양오픈에 우리 선수들이 참가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그 대신 7월 대전에서 열린 국제 탁구대회에 선수 16명을 포함한 북한 선수단 25명이 참가했었다. 스웨덴 탁구선수권대회에 이어 남녀 복식과 혼합복식에서 단일팀이 구성되었다. 이 대회에서 혼합복식의 장우진(남)-차효심(북) 조가 우승했고, 남자복식의 이상수(남)-박신혁(북)조가 동메달을 땀다. 남북 단일팀의 정례화가 다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⁶⁾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평창이 뜬 남북화해의 배턴이 아시안게임으로 넘겨졌다.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아시안게임 공동진출”에 대한 양 정상의 약속이행으로⁷⁾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이 구성되었다. 자카르타의 겔로라 봉 카르노(GBK) 주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장에 남북이 ‘우리’가 되어 ‘코리아’라는 단일팀으로 여자농구 주장 임영희와 북한 축구 대표 주경철이 함께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들어섰다. 아리랑 선율에 맞춰 역대 11번째로 ‘코리아선수단’이 입장을 할 때 남북 선수들의 공동 입장에 관중들이 환호하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남북 선수단장들이 나란히 양손을 잡고 행진했고 중앙 관중석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는 함께 일어나 양손을 들고 환영했다.

남북 공동입장은 아시안게임에서는 2006년 도하대회 이후 12년 만이고, 역대 국제 종합대회에선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래 11번째다. 아시안게임에서는 최초로 국제 종합대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어 두 번째로 단일팀을 꾸려 졌는데 여자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3개 종목이다. 각국 선수들은 40개 종목에 걸린 465개 금메달을 놓고 9월 2일까지 16일간 열전을 펼친다. 총 1044명의 선수단을

6) 중앙일보. 2018.7.23.

7) 판문점 선언 제3조 4항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파견한 우리나라는 1998년 방콕 대회 이래 6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에 도전한다.

북한은 4년 전보다 18명 늘린 총 168명이 11개 종목에 출전했는데 이중 남녀 축구 대표가 40명으로 가장 많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 단일팀이 글로벌 브랜드 대신 '노브랜드'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 대북제재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미국 독자제재 등으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과 장비 등에 대한 제재에 따라서 여자 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등 3개 종목 남북 단일팀과 관계된 선수들은 모두 국내 업체가 제작한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 당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기존 한국대표팀이 입었던 나이키 유니폼 대신 핀란드 테클라가 만든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나섰다.⁸⁾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8월 11일 서울 삼암월드컵경기장에서는 3년 만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열렸다.

10일 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 64명 또한 유소년 축구단 대표단과 같은 서해육로를 통해 방남했다. 한국노총 대표팀과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건설노동자팀, 민주노총 대표팀과 직총 경공업팀의 2개 경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999년 평양대회, 2007년 경남 창원대회, 2015년 평양대회에 이어 네 번째로⁹⁾ 개최되었는데 이번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판문점 선언」이후 열린 첫 남북 민간교류행사로 김영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이것은 승패를 가르는 축구가 아닌 통일이고 평화라고 강조했다. 찌는 불벌더위에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의 관중이 모여 남과북 모두를 응원하였다.

U-15 축구대회

평양 U-15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대표단인 강릉 주문진중학교 팀과 경기도 연천군 미라클 유소년축구단과 151명이 10일 서해 육로를 통해 다녀왔다. 이 육로를 통한 평양방문은 이희호 여사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목적 방북 이래 7년여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육로방북 허용은 경비절감뿐만 아니라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통일에 대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¹⁰⁾ 의미를 강조했다.

'제4차 아리스포츠컵 15살 미만 국제축구대회'에는 우리 두 팀과 북한의 4.25 체육단팀, 평양국제축구학교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6개국 8개팀이 참가했었다. 우리 강원도 팀은 3위, 경기도 팀은 5위를 기록했다. 지난 15일에는 개막전에 앞서 4.25 여자축구팀과의 하나은행 여자축구 선발팀이 친선경기를

8) 중앙일보, 2018.7.30.

9) 한국일보 2018.8.11.

10) 한겨레신문, 2018.8.9.

가졌는데 1:0으로 패하고, 결승전에 앞서 또 한 차례 경기에서 4.25 여자축구팀에게 다시 3:1로 패했다.

18일 결승전에는 4.25체육단과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올라갔다. 4.25체육단은 인민무력부 소속의 군 조직으로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체력이 우세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평양국제축구학교’ 선수들도 만만치 않았다. 결승전답게 양팀 선수들은 경기 시작과 함께 태클과 몸싸움, 공중충돌을 불사하는 격렬한 경기를 벌였고 결국 무승부로 끝난 전후반 70분을 지나 승부차기에 접어들자 4만 이상이 들어찬 경기장의 응원 열기는 개막전 이상이였다. 금빛 응원막대를 손에 쥔 소년단, 학생들은 온 경기장이 떠나갈 듯 박수와 함성, 파도타기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응원했다. 4.25체육단팀이 승부차기 끝에 6:5로 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북측 4.25체육단·평양국제축구학교 선수들과 남측 강원도·경기도 연천 선수들은 평양시민, 학생들에게 트랙을 돌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4만여 관중은 전광판을 통해 나오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 ‘통일아리랑’ 등 반주와 화면에 맞춰 뜨거운 함창으로 선수들을 격려했다.¹¹⁾

6개국 8개팀이 출전하는 소규모의 대회에 4만여 관중이 동원되었단다. 여기에서 ‘소년단’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히 애착을 갖는 단체이다. 북한 주민들은 평생 소년단-청년동맹-직맹으로 이어지는 조직생활을 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소년단이고 김정은 체재의 차세대 미래지지기반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유소년 축구팀을 보면 김 위원장의 축구정책을 알 수 있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체육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2013년 5월 31일 룡라도 1만 2,200㎡의 총부지 면적에 현대적인 교사와 훈련조건, 후생시설들을 갖춘 ‘축구선수 후배양성기지’로 개교했다. 지난 해 3월 첫 배출한 제1기 졸업생들이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기관차체육단 등 전문체육단체들과 국가청소년축구종합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이 보도했다.¹²⁾

현재 수백 명의 재학생이 나이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과정에 따라 소학반(5년), 초급반(3년), 고급반(3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학, 물리 등 기초과목을 비롯해 일반과목 교육과 축구실기 교육을 함께 받고 있다. 학생들은 축구실기 교육을 위해 마련된 7개의 인공잔디 축구장과 계절·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실내 훈련장에서 매일같이 축구 기초훈련과 육체훈련을 규칙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축구 실기교원들은 대부분 전문 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20~30대의 젊은 교원들이며, 일반과목 교원들도 전국 보통교육 부문에서 실력있고 축구에도 조예가 깊은 교원들을 엄격히 선발 배치하고 있다. 교원들은 최신 체육과학 기술 자료들을 직접 번역하고 세계적인 강팀들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자체의 훈련수단과 방법을 도입하고 교수훈련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각 도와 평양시, 남포시, 나선시 등에 새 세대 선수 양성을 위한 축구학교가 새로 나왔다고 3월 30일자 <로동신문>에 보도했다.¹³⁾

11) 통일뉴스, 2018.8.18.

12) 통일뉴스, 2017.12.18.

13) 통일뉴스, 2018.3.30.

향후 남북체육교류 추진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8.31~9.15)
2019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추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7.12~8.11)
2020 도쿄올림픽 대비 협력(합동훈련, 공동입장, 단일팀 등)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교류 정례화
남북통일(농구, 축구, 탁구, 아이스하키, 태권도)대회
경평축구대회

통일외식은 교육이 아닌 실사구시적 교류협력 경험으로

한국리서치가 7월 31일 발표한 <통일관련 여론조사> 현황에 따르면¹⁴⁾ 통일의 이익이 클 것(64.6%)이며, 구체적으로는 국제적 위상(86.4%)과 일자리 창출(79.6%)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위협인 동시에 협력 대상으로 간주되, 대화와 타협 가능성은 72.9%로 높은 평가를 보였다. 대북제재는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은 88.8%였다.

어쩌면 통일의 해결책은 지극히 단순한 논리일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 간에 왕성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 기반으로 남북이 함께 이익을 내고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정체성’이라는 감성이야말로 통일을 위한 정신적 기반이자 원천일 수 있다. 서로 자주 만나고 접촉하다 보면 그동안의 상호 이질감과 불신의 담장은 낮아지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주민들의 통일 공감대가 반비례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통일공감대 확산의 출발점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 즉, 한민족 정체성의 ‘당위적 통일’ 보다는 ‘국민이 생각하는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러 민족이 모여서 잘 사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민족정체성 주장은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젊은 세대 중에는 통일 안 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통일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분단 70여 년 동안 두 세대를 거쳐 오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외식은 단순히 정책이나 교육으로만 바뀌지 않는다.¹⁵⁾ 통일은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방문하고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 통일을 직접 느껴야 한다.

14) 한국리서치(2018). 통일관련 여론조사 현황. 8.14.

15) 김병로(2018). 통일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연구원. 97-103.

나가는 말

평창은 평화올림픽이었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정세 대전환의 첫걸음이었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협정 평화협정까지 논의되고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꿈만 같은 일이다. '우리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응원할 때 외치던 응원구호였다. '다시 만나요' 라는 말이 씨가 되어 국내외에서 남북민들이 만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치와는 별개로 남북 간에 자유롭고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는 일반사회문화 영역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전제로 지금까지도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가하고 있다. 체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남북 당국이 상호 선수대표단 파견시 민간인 방북, 방남에 제한을 두고 있고 국제 대회에 단일팀선수들의 유니폼이나 장비에도 제재가 있다. 북한에서의 체재비나 경비 역시 제재완화 이후에나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타 다른 분야에 가해지는 대북제재보다는 다소 자유로운 까닭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남북 체육교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경축사에서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첫날 신년사 육성연설을 통해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면서 70주년 9·9절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두 정상 연설문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고 북한 70주년 9·9절이 온전한 하나의 코리아로 새롭게 탄생되는 의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shutterstock

※이 글에 실린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